수신: 열린문교회 해외선교부

발신: 헝가리선교사 신성학

✻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임목사님과 해외 선교부 그리고 장로님들과 온 교회성도님들께 안부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평안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은혜가운데 이 사역들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전도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는 열린문교회가 있어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힘차고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열린문교회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가을에 더 큰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과 선교부 그리고 장로님들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주님의 복음사역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히 결실하시길 기도합니다.

✻ 저희는 헝가리 현지인교회, 집시사역들, 노숙인사역, 그리고 전도집회사역등을 진행하면서 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어서고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영광교회에서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의 마음, 복음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심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갚을 길은 없으나 마음깊이 담고 이 끝날 줄 모르는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공동체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집시센터 감자나누기: 올 해 헝가리는 전무했던 가뭄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모든 농산물작황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포도농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면 집시센터가 있는 뀌르떼시뿌쓰떠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포도수확의 노동자가 됩니다. 그 수입으로 겨울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해는 단 4 일 정도밖에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48 가정에 감자 한포대씩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예배 때 마다 나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척박한 사람들의 삶에 예수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요오병이어 공동체 예배: 매주 금요일 약 50 여명의 노숙인들과 빈민들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커다란 가방, 작은 가방, 바퀴달린 가방들을 한 가득씩 안고 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가 다 담겨있는 듯합니다. 근사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중에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갖 냄새 다 풍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중에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앉으니 밀려오는 피로를 감당할 길이 없음입니다. 때론 코고는 소리도 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도 아멘과 예수가 터져 나옵니다.

‘왕 중의 왕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Bundesbewerb
LINZ
2012